

장수군서 도내 최대규모 신라 무덤군 확인

'장수 춘송리 무덤군' 도굴 피해 없는 온전한 형태 신라 무덤으로 밝혀져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사 문화권 발굴조사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최대규모의 신라 무덤군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견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장수 춘송리 무덤군'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도내 최대 신라 무덤군으로 침령산성 동북쪽 산줄기를 따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덤만 15기 이상이다. 또한 그 일대 수십 기의 무덤이 밀집 분포해, 지난해 일부 시굴조사를 통해 단일 무덤 9기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4호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름 15m 내외의 대형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돼 눈길을 끈다.

무덤은 원지형을 다듬은 후 지형에 맞춰 대규모 흙을 쌓아 기초부를 마련된 후, 기초부 안쪽 공간에 시신을 묻는 공간이 축조됐다. 시신의 안치와 부장품의 매납이 완료된 후 봉분이 덮였다.

시신이 묻히는 공간은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둔 길이 3.3m, 너비 1.2m 내외의 앞 트거식 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이다. 길이 30cm 내외의 갠돌(割石)로 축조돼 남쪽에 입구를 두어



장수 춘송리 4호분 조사 후 전경

시신을 옆으로 매장하는 구조이다. 내부에는 시신(목관)의 안치와 부장품 매납을 위한 관대(棺臺)가 마련됐다.

무덤 내부에서는 굽다리 긴 목항아리(甕附長頸壺), 굽다리 접시(高杯), 병(甁), 토령(土鈴), 발형토기 등 22점의 신라토기와 쇠손칼(鐵刀

子), 관못(棺釘) 등 9점의 철기가 출토됐다.

특히 '토령'은 흙으로 만든 작은 구슬로 그동안 경주 일원에서 소수만 출토된 귀한 유물이다. 발형토기에서 늘어붙은 내용물이 함께 확인돼 앞으로 연구분석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간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단일 신라 무덤 중 최대 출토량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토기는 '침령산성'의 출토품과 형태 및 시기적으로 유사해 무덤의 주인이 침령산성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도내에서 조사된 신라 무덤 중 최대의 규모인 '장수 춘송리 4호분'은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멸망 이후 역사적 동향과 신라의 진출 과정, 신라와 백제의 역사 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 구체적인 무덤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비롯한 인접한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장수지역과 '신라'의 관련 역사 사실을 발굴해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국가사적인 '침령산성'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상에 있어, 무덤군과 산성이 하나를 이룬다. 침령산성은 삼국부터 후삼국까지 운영된 장수군의 대표 산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해 8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산성의 특징인 현문식 문지, 계단식 원형 집수시설 등이 조사됐으며, 집수시설에서 신라 목간(목간 내용 別道中在道使村)을 비롯한 적지 않은 양의 신라 토기가 출토돼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첫 획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한국경영인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제3자인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것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롯한 기관의 공급망,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경영활동을 펼치기 위한 제도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대면·비대면 인권교육을 확대해 왔다. 특히, 인권 침해 관련 구제 절차 마련, 내부 직원 대상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지는 등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등이 높이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무주=전문성 기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전북문화관광재단, 뷰티페스티벌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 코리아 웰스&웰니스 페스티벌 in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이하 뷰티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웰니스관광지 및 지자체 20여 개, 의료기관 100여 개에서 총 20,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올해 최대 규모였다.

재단에 따르면 B2B 상담회를 통해 해외 여행사 5개와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추후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러시아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관광지 홍보 부스를 운영해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장문성 기자

익산시립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고 지구촌 평화 염원

익산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연주회가 열린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7회 정기연주회 '기억'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의 주제가 '기억'인 것은 가슴 아픈 전쟁을 기억하며 전쟁을 극복하고 희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전쟁의 두려움과 슬픔, 평화,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1부 연주곡인 '하이든의 전쟁미사(Missa in Tempore Belli)'는 하이든이 1796년 나폴레옹의 전쟁 시기에 인류 평화의 염원을 담아 작곡한 곡으로 하이든의 미사곡 중에 최고로 손꼽힌다. 죽음을 수시로 직면하는

포화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담고 있다. 마지막 악장 '아그너스 데이(Agnus Dei)'에는 팀파니와 트럼펫과 같은 기악 악기 연주로 전쟁의 생생함을 넘어 참혹함을 표현한 후 다시 찾아올 평화를 노래한다.

2부에서는 김민아 작곡가의 창작 칸타타 '기억'을 연주한다. 기억은 한국전쟁 당시 '만경교회 민간인 학살'을 직접 경험한 들샘 송해섭의 추모시를 모티브로 한다. 젊은 희생의 피와 가슴에 사무친 눈물을 흘려보낸 오랜 세월의 만경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날에', '내 마음 속에 그대들이 살아있을 때' 등 3개의 악장으로 이뤄져 있다.

티켓은 전석 무료이며,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 또는 전화(063-859-330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Scale-up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5~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사업 'Scale-up 프로젝트' 참여 기업 5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소재 경력 7년 이내 관광기업으로, 재단(jct.or.kr) 및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jonbuk.tourbiz.or.kr) 누리집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와 함께 투자 역량 강화 멘토링 및 기업 IR 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관광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성장기회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다양한 문화권 음악 이야기 만난다

전주세계소리축제·월드뮤직센터 공동기획 '월드뮤직 아카데미' 개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강의 및 워크숍 형식의 렉처 콘서트 '2024 월드뮤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리축제가 월드뮤직센터와 협력해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아일랜드, 남미, 인도, 동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악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더불어, 젊은 월드뮤직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옛도지사 관사 '하얀양옥집(하양집)'에서 이색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린다. 사전예약 및 참가신청은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네이버폼을 통해 일차별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063-252-8356)로 하면 된다.

한편 '2024 월드뮤직 아카데미'는 총 4회 진행되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세계 음악과 악기,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사회는 월드뮤직센터 기획자 박종현 씨가 맡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연문화연구소

전주 MDC

한빛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ROMANTIC CROWN

Souza

Torriden

비디오

비디오

MARITA

HIBROW

진주원(주)